

Heli-Expo '97을 다녀와서

삼성항공산업 운항사업부 팀장 나 창 채

60개국 1,300개업체 가입...HAI

Heli-Expo '97참관기를 쓰기전에 우선 이 행사를 해마다 주관하고 있는 HAI(Helicopter Association International)를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 HAI는 전 세계적으로 60개국의 1,300개 회원사가 가입되어 있으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헬기수송과 민간 헬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48년 창설되었다. 회원은 헬기 제작업체와 운영업체로 구분되어 있으며 정회원사(이사회 임원선출 투표권자)는 민간헬기 운영업체로 사업용, 회사용, 공공서비스용 헬기를 운영하는 회사들이며, 회원사가 운항하는 헬기만도 전세계적으로 4,000여대에 달하고 비행시간이 연간 2백만시간에 이른다. 삼성항공은 96년 정회원으로 HAI에 가입하여, 작년 달라스 Heli-Expo '96에 이어 두번째로 참가하였다. HAI 예하에는 Safety Committee를 비롯하여 총 22개의 Committee가 있는데 헬기 운전자, 제작자, 감독기관등을 상호 연결해 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모든 위원회의 회의장면은 행사기간중 참석자들에게 공개되므로 관심있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토의 내용을 방청하고 발언

권을 얻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관심있는 정보나 자료를 획득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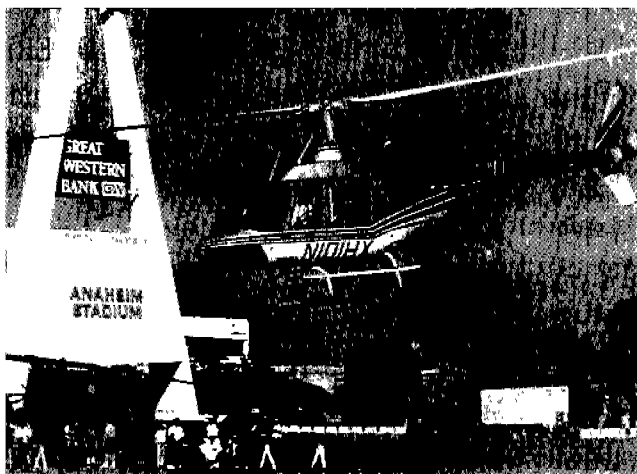
Heli-Expo '97

금년 2월 2일부터 4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의 애나하임에서 개최된 본 행사장소는 지리적으로 로스엔젤레스 근교에 위치하고 있으며, 행사가 개최된 컨벤션 센터의 건물과 힐튼호텔은 유명한 디즈니랜드와 바로 이웃에 위치하고 있었다. 매 회마다 당해년도의 정기총회를 겸하며, 금년에는 제49회 정기총회를 겸하여 실시되었다.

작년에는 텍사스에 위치한 달라스에서 개최되었으며 내년부터 2천년까지의 일정을 소개하면 98년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애나하임(Anaheim), 99년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달라스(Dallas) 2천년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라스베가스(Las Vegas)에서 개최되도록 준비되어 있다.

본 행사에 참여하여 전시부스를 설치한 회사수는 벨 헬리콥터 등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세계적인 헬기 제조업체를 비롯하여 헬기관련 제작 및 서비스 업체별로 48개종류





필자가 이번 행사를 참관하면서 중점을 두었던 부문은 전시장 관람도 있었지만 행사기간중에 실시되는 다양한 세미나, 심포지엄과 Committee 등의 부대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더 큰 유혹으로 다가왔다. 관심있는 세미나 또는 위원회의 시간, 장소 등을 점검하여 참석하는 것은 여러가지로 의미가 있다. 이번 행사기간동안 특히 좋았던 것은 벨사에서 발표한 CRM을 주제로한 안전 심포지엄, 안전위원회의 안전 통계자료가 인상적이었고, 정비관

286개업체가 참가하여 회사소개 및 신제품을 선보였다.

참관할때 등록비는 회원과 비회원, 일괄등록 혹은 일일등록으로 낼 수 있는데 등록 시기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고 현장에서 등록후 출입증을 발급받아 행사장에 출입할 수도 있다. 사전에 등록을 한 경우도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출입이 가능했다.

특히 헬리엑스포행사는 행사전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행사전 약 일주일부터 HAI가 주최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소개되는데 'Helicopter Operation Management Course'를 비롯하여 정비, 안전관리 등 9개과정이 개설되어 신청하는 사람은 누구나 일정한 교육비를 내고 참석할 수 있다.

높은 전시장으로...

배움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부대행사

전시장을 살펴보면, 앞서 설명한 많은 수의 업체가 참가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관심있는 업체나 특정상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상담하여 추가 자료를 구할 수 있었으며 나머지는 가볍게 구경하는 기분으로 둘러보았다.

리자 세미나에서는 비인가 항공기부품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토의였다. 어느 위원회에 가더라도 주 토의의제는 비행안전과 관계되는 것들이어서 항공안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는 인상을 받았다. 특히 일본에서는 고베 대지진 발생시 헬기운항 실태와 문제점, 발전방향 그리고 제4세대 교통수단으로서의 헬기운항과 헬기장 건설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많은 관심을 끌었다. 남미쪽에서는 남아메리카의 헬기산업 발전전망, 러시아에서는 MI-26헬기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참가했으면...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헬리 엑스포에 참석한 필자는 전시회를 보고, 여러 세미나 심포지엄 그리고 포럼 등에 참석하면서 우리의 민간헬기업체의 수준은 비록 영세하지만 이러한 국제모임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우리나라의 민간헬기업체가 나아갈 길에 대해 서로 토의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많이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국내업체들만이라도 헬기산업에 대한 진지한 토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보았다.